형제붕우소회가라



[해제]

<형제붕우소회가(兄弟朋友所懷歌)>는 규방가사다. 이 작품은 작자를 알 수 없으며, 현재 한국가사문학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한지에 줄글 형태로 필사한 것으로 두루마리로 되어 있다. 필사 상태가 좋지 않아 전후 맥락을 해독하기 어려운 부분이 더러 보인다. 연철(連綴)이나 분철(分綴)등과 같은 표기법도 혼란이 많다. 이중모음을 많이 쓰고 있으면서도 용법이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이 작품은 마무리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도 두루마리 끝이 떨어져나간 것 때문으로 보인다. <형제붕우소회가>는 일반 규방가사와는 내용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규방가사는 여자의 시집살이 생활을 그린다. 어려운 형편을 무릅쓰고, 시부모를 잘 봉양하고 남편을 공대하고 자녀를 잘 길러, 가문을 일으키는 내용이 그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덕행을 강조하고, 교훈적인 내용을 아들딸에게 일러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 작품은 시집가는 심경을 담고 있다. 여자로 생겨난 것을 원망하고 있다. 제목이 뜻하는 것처럼, 친정집의 형제와 친구들과 즐겁게 지냈던 일을 추억하며 회상하고 있다. 이 가사에는 고향집의 형제들과 놀았던 일이나, 여자만이 겪어야 하는 한탄과 조물주에 대한 원망을 많이 담고 있다. 남자는 고향에서 다정한 형제와 친구들과 변함없이 즐겁게 지낼 수 있지만, 여자는 시집을 감으로써 빚어지는 외로운 상황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원문]

형제붕우소회가라
어라 붕우드라 이ᄂᆡ말삼 드러보소
건곤니 초판후의 음양이 웃듬이라
임임총총 만물중의 연한거시 사람이라
야속할사 삼신임니 음양을 가릴적ᄋᆡ
여자몸을 마련히ᄂᆡ 나도나도 이럴망정
아회적의 권여로서 사오세예 소일함은
방득가ᄃᆡ 시간사름 풀씃드 각시하기
이거살 이럴삼모 십오세 넛짓간이
침신방적 힘씨난ᄃᆡ 가련하다 우리여자
호닌밥설 나는구나
헛부도다 우리부모 기를적외 남여가 남녀다름업시
여람이면 더울ᄉᆡ라 겨울이면 치울세라
불면 날일세라 ᄌᆡ면 써질세라
아장아장 길너기여 이거시 무삼일고
남을갓다 막기난줄 쑴인들 싱각할가
조물도 야속하다 남자가 도얏쏘면
원부모 원형제난 옛법의 마엿시ᄃᆡ
이거시 무엇신고 은근하신 부모동기
살들하신 삼사촌과 오륙친척 다바리고
주령한번 닥고나니 지척이 철리로다
그령저령 히가지니 시ᄃᆡ싹기 기작한니

형제붕우소회가라

슬푸도다 이ᄂᆡ마음 수란할사 이ᄂᆡ마음
치마압피 다적난다
가마이 울엇드니 이소리럴 은근하신 부모임이
암작글늬 ᄲᅵ다른면 우지마라 우지마라
우리박실 우지마라 ᄂᆡ우름 한소리의
ᄂᆡ일천간장 다녹난다 한이
ᄂᆡ마음이 세로나서 그력저력 히가진서
ᄃᆡ문전 다달나서 가ᄆᆡ박글 썩나건이
강ᄉᆞ이 슬렵고 면목온 세롭드라
역역히 싱각하니 부모동기 싱각겻틔
사람 씨긴다시 광심이 절노난다
응기종기 노든붕우 몃곳을로 흣터진고
수령하난 기력이라 가을마다 도라오면
한류하난 씌쇼리라 봄마다 모힐손가
이변가면 다시올길 약수쳘리 막막하다
가련한 우리소히 중치창 그ᄂᆡ아랴
헛무도다 우리붕우 실푸도다 소히마암 다를손가
서창을 ᄂᆡ다보니 강산도 슬렵고
면목은 세롭드라 세상사람 못할일을
ᄂᆡ혼자 당한다시 말한말도 조심이요
발한거름 눈치로다
쏫방석기 침석이요 고기마시 소ᄃᆡ로다
그령저령 흐런ᄉᆡ월 어나쌔 춘절이라
버들잎흔 악이틀고 제비ᄉᆡ기 넘노난ᄃᆡ
천무열풍 읍으하고 히불양파 삼월이라
효도명훈 그도하고 비환송죽 춤을춘다
구십소망 점은고ᄃᆡ 뉘가아니 익기든고
규중의 노든우리 몃곳으로 흣터진고
역역히 싱각하니 몽ᄆᆡ각고 저성갓다
잇씌더옥 히싱이라
만하는 방창하고 온갓세 온갖실피우니
목섬간장 아이거든 조흘수가 잇난가
복글복글 우난세난 무비다 수심일ᄉᆡ
지는쏫천 이별이요 돈는풀은 싱면이라
전연히 죽근풀은 하마다시 도라온ᄃᆡ
날과갓치 ᄶᅥ난사람 집ᄋᆡ갈길 아득하다
산은중중 둘려잇고 물은잔잔 흐러난ᄃᆡ
심신이 살란하여 히소름 진정치못

형제붕우소회가라

서천을 벗절삼고 야심토록 싱각다가
한경비려 잠이드니 엄숙하신 부모동싱
전의노든 붕우들리 좌우로 버러안자
히소동낙 상봉할제 이름업시 질겻드니
원수로다 계명성의 잠을놀ᄂᆡ 씬다른니
얼장춘몽이라 하나도 잣치업서 어이할고
가가호호 헤아른니 그거시다 시집이라
무비다 살들하고 면면이 전히로다
이른집을 써나와서 남의집을 지집사마
싱각하이 얄굿할분 자고나면 먹을공ᄉᆞ
먹고나면 입을공ᄉᆞ 잇잇틈틈 부모싱각
겻ᄃᆡ사람 쓰긴다기 잠시반기 잇질손야
사랑이 깁흘사록 조심더옥 하리로다
친정경문 셍각하이 말말이 조심이라
아ᄌᆡ사람 이히포을 뉘을ᄃᆡ히 무러보면
뉘을ᄃᆡ히 원설하리 고고이 싱각하이
남자못ᄃᆡ 한이로다
칩도덥도 안니한ᄃᆡ 분벽서창 다리는니
압작반겨 이려나서 칠월장 적벽부와
이별가 한곡조을 소ᄅᆡ업시 외와ᄂᆡ니
마압이 밋칠다시 간장이 녹을다시
웅기중 노든일을 어제갓치 역역하다
세세이 싱각한이 눈물이 절로나서
치마압피 다적난다
마압이 수란하여 창힌들 업살손가
창히의 발믄바람 우공ᄉᆞᆫ천 도라온니
청청ᄋᆡ 발근달은 부모동싱 보건마는
위달할사 이ᄂᆡ일신 엇진일로 못보난고
창망한 구람밧게 바라나니 친정손님
원한난이 동기종반 오메불망 아이련가
ᄋᆡ오안자 셍각하이 날마다 노름이요
밤마다 히소로다
전의노든 동유들은 뉘가온고
이리저리 셍각하이 광심이 절로난다
어니시절 귀령하여 무비다 즐기온고
보고지고 부모 동기면목 보고지고
동기친척 보고지고 영역히 싱각하이
무비다 허ᄉᆡ로다

형제붕우소회가라

도라누어 싱각하니 화수 이연하는
요지연ᄋᆡ 먹을가라 무신필로 건푸려
빅노지 당쥬지로 합노ᄋᆡ 차자ᄂᆡ여
일괄히지 셕근사여 어연이 반갑도다
가족종슉 이날을 볼작시면 몃달만의 만ᄂᆡ보니
야란마음 그지업다
반갑운증 술푸도다 화산갓치 모흔마암
이번보고 푸자드니 낫쳘보니 악수상봉 쑨이로다
어와 붕우드라 시집사리 엇듯튼고
말도마라 시집사리 하노라고 조심히도
말은어이 그리만코 안자도 잠이오고
서서도 잠이온이 원수고도 민주로다
부대부대 그말마오 분여의 쌍사기와
강틔공ᄋᆡ 낙슈하기 무비다 치조리고
빅금도 방심마오
셕충ᄋᆡ 부기하기 한할ᄆᆡ 전허업고
산언ᄋᆡ 누ᄒᆞᆼ 춘풍 만고의 빗난도다
운이 불힝하외 우리가 여자된일
ᄋᆡ달코도 원통하다 우리몸이 다각각 시

형제붕우소회가라

[현대역]

형제붕우소회가라
어와 붕우1들아 이내말씀 들어보소
건곤이 초판2후에 음양이 으뜸이라
임임총총 만물 중의3 영한 것4이 사람이라
야속할사 삼신님5이 음양을 가릴 적에
여자몸을 마련했네 나도나도 이럴망정
아이적에 귀녀6로세 사오세에 소일함은
방둑가에 세간살이 풀뜻듯 각시하고
이것을 없을 삼아 십오세 넌짓가니
침선방적7 힘썼는데 가련하다 우리여자
혼인밥을 나는구나
헛보도다 우리 부모 기를적에 남녀가 다름없이
여름이면 더울새라 겨울이면 추울새라
바람불면 날릴새라 지면 꺼질새라
아장아장 길러 기어 이것이 무슨일고
남에게 갖다 맡기는 줄 꿈인들 생각할까
조물도 야속하다 남자가 되었다면
원부모 원형제는 옛법의 매였시되
이것이 무엇인고 은근8하신 부모동기
살뜰하신 삼사촌과 오육친척 다버리고
주령 한번 닦고나니 지척이 천리로다
그럭저럭 해가 지니 시대산천 가까울까
슬프도다 이내 마음 수란9할사 이내 마음
치마 앞이 다적신다
가만히 울었더니 이 소리를 은근하신 부모님이
깜짝놀라 깨어나면 울지마라 울지마라
우리 박실 울지마라 내 울음 한소리의
내 일촌간장10 다녹는다 하니
내 마음이 새로나서 그럭저럭 해가 져서
대문앞 다다라서 가매밖을 떠나거니
강산이 새롭고 면목은 새롭더라
역력히 생각하니 부모동기 생각컨대
사람 씻긴듯이 관심이 절로 난다
옹기종기 놀던 붕우 몇 고을로 흩어진고
수령하는 기러기라 가을마다 돌아오면
한류하는 꾀꼬리라 봄마다 모일손가

형제붕우소회가라

이번 가면 다시올 길 약 수천리 막막하다
가련한 우리 소회11 중치창 그내 알랴
헛보도다 우리 붕우 슬프도다 소회마음 다를손가
서창을 내다보니 강산도 새롭고
면목은 새롭더라 세상사람 못할 일을
내 혼자 당한듯이 말한 말도 조심이요
발 한걸음 눈치로다
꽃방석이 침석이요 고기맛이 소태12로다
그럭저럭 흐른 세월 어느 때 춘절13이라
버들잎은 싹이 트고 제비새끼 넘노닐고14
천무열풍15 음우16하고 해불양파17 삼월이라
효도명훈 기도하고 비환송죽 춤을 춘다
구십춘광18 저문 곳에 누가 아니 아끼던고
규중19의 놀던 우리 몇 곳으로 흩어진고
역력히 생각하니 몽매20같고 저성21같다
이때 더욱 회생이라
만화22는 방창23하고 온갖 새 슬피우니
목석간장24 아니거든 좋을 수가 있는가
보글보글 우는 새는 무비다25 수심일새
지는 꽃은 이별이요 돋는 풀은 생면26이라
전년 해 죽은풀은 하마 다시 돌아온대
나와 같이 떠난 사람 집에 갈 길 아득하다
산은 층층 둘러있고 물은 잔잔 흐르는데
심신이 산란27하여 회포28를 진정치 못하고
서천을 부절29삼고 야심30토록 생각하다가
한밤중에 잠이 드니 익숙하신 부모동생
전에 놀던 붕우들이 좌우로 벌려 앉아
희소동락31 상봉할제 이름없이 즐겼더니
원수로다 계명성32의 잠에 놀래 깨달으니
일장춘몽33이라 하나도 자취없어 어이할꼬
가가호호34 헤아르니 그것이 다 시집35이라
무비다36 살뜰하고 면면히 전해로다
이런 집을 떠나와서 남의 집을 제집삼아마
생각하니 얄굿할 뿐 자고나면 먹을 공사37
먹고 나면 입을 공사 이이틈틈 부모생각
곁에 사람 쓴 것처럼 잠시 반김 있을소냐
사랑이 깊을수록 조심 더욱 하리로다
친정경문38 셍각하니 말말이 조심이라

아랫 사람 이 회포를 뉘를 대해 물어보면
뉘를 대해 원설39하리 곰곰이 생각하니
남자 못되어 한이로다
춥더덥도 아니한데 분벽사창40 달이 뜨니
앞에 반겨 일어나서 자칠월장 적벽부41와
이별가 한 곡조를 소리없이 외워내니
마음이 미칠듯이 간장이 녹을듯이
읊는 중에 놀던 일이 어제같이 역력하다
세세히42 생각하니 눈물이 저절로 나서
치마앞이 다적신다
마음이 수란43하여 창해44인들 없을손가
창해의 밝은 바람 우공산천45 돌아오니
청청에 밝은 달은 부모동생 보건마는
애달할사 이내 일신 어쩐 일로 못보는고
창망46한 구름밖에 바라나니 친정손님
원하나니 동기동반47 오매불망48 아니런가
애오앉아 생각하니 날마다 놀음이요
밤마다 희소로다
전에 놀던 동유49들은 누가 오는고
이리저리 생각하니 관심이 저절로 난다
어린 시절 귀녕50하여 무비다 즐겨운고
보고지고 부모 동기면목 보고지고
동기친척 보고지고 역력히 생각하니
무비다 허사로다
돌아누워 생각하니 화수 이연하는
용지연51의 먹을 갈라 무슨 필로 건푸려
백로지52 당주지로 합노에 찾아내어
일필휘지53 석근사여 어연이 반갑도다
가족종숙54 이 날을 볼 것이면 몇달만에 만나보니
야린55 마음 그지 없다
반갑고도 슬프도다 화산같이 모인 마음
이번보고 풀자더니 낯을보니 악수상봉56 뿐이로다
어와 붕우들아 시집살이 어떻던고
말도마라 시집살이 하느라고 조심해도
말은 어이 그리 많은고 안자도 잠이 오고
서서도 잠이 오니 원수고도 민주로다
부디부디 그말 마오 분여의 땅사기와
강태공의 낙수하기 무비다 채조리고

형제붕우소회가라

백금도 방심마오
석충의 부기하기 한할매 전혀없고
산언의 누항춘풍 만고의 빛나도다
운이 불행하여 우리가 여자된 일
애달코도 원통하다 우리 몸이 다각각 시

[각주]

1) 붕우(朋友) : 친구.
2) 초판(初判) : 처음으로 나뉨.
3) 임림총총(林林叢叢) 만물중(萬物中)에 : 수없이 많이 있는 만물 가운데.
4) 영한 것 : 신령(神靈)스러운 것.
5) 산신(山神)님 : 산신령.
6) 귀녀(貴女) : 귀한 집 딸.
7) 침서방적(針線紡績) : 바늘과 실, 실을 내어 옷감을 짜는 일.
8) 은근(慇懃) : 야단스럽지 않고 꾸준함.
9) 수란(愁亂) : 시름이 많이 정신이 사납다.
10) 일촌간장(一寸肝腸) : 한 토막의 간장과 창자. 애달프거나 애가 타는 마음을 이르는 말.
11) 소회(素懷) : 평소에 품고 있는 회포나 뜻.
12) 소태 : 소태나무의 껍질.
13) 춘절(春節) : 봄.
14) 넘노닐고 : 넘나들며 한가롭게 거닐고.
15) 천무열푸(天無烈風) : 하늘에 사나운 바람이 없음.
16) 음우(淫雨) : 궂은 비.
17) 해불양파(海不揚波) : 바다에는 물결이 일지 않아 잔잔함.
18) 구십춘광(九十春光) : 석달 동안 화창한 봄 날씨.
19) 규중(閨中) : 부녀자가 거처하는 곳.
20) 몽매(夢昧) :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움.
21) 저성(杵聲) : 다듬이질과 절굿공이 소리.
22) 만화(萬花) : 온갖 꽃.
23) 방창(方暢) : 바야흐로 화창함.
24) 목석간장(木石肝腸) : 나무나 돌처럼 아무런 감정도 없는 마음씨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5) 무비(無比) : 비할 바 없음.
26) 생면(生面) : 생면목(生面目). 처음 대하는 얼굴.
27) 산란(散亂) : 어수선하고 뒤숭숭함.
28) 회포(懷抱) : 마음 속에 품은 생각.
29) 부절(符節) : 돌이나 대나무·옥 등으로 만들어 신표로 삼던 물건.
30) 야심(夜深) : 깊은 밤.
31) 희소동락(喜笑同樂) : 기뻐 웃음으며 즐거움을 같이 함.
32) 계명성(鷄鳴聲) : 닭의 울음소리.
33) 일장춘몽(一場春夢) : 한바탕의 봄꿈이라는 뜻으로,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4) 가가호호(家家戶戶) : 집집마다.
35) 시집[媤宅] : 남편의 집안. 시댁은 시집을 높여 부르는 말.
36) 무비다 : 비할 바 없이 모두.

37) 공사(空事) : 헛된 일. 생각.
38) 친정경문(親庭慶聞) : 친정 집안의 경사로운 소식.
39) 원설(冤雪) : 설원(雪冤)이 바른 표기로. 원통한 사정을 풀어 없앰.
40) 분벽사창(粉壁紗窓) : 하얗게 꾸민 벽과 비단으로 바른 창이라는 뜻으로, 여자가 거처하며 아름답게 꾸민 방을 이르는 말.
41) 자칠월장(自七月章) 적벽부(赤壁賦) : 칠월의 노래 적벽부로부터. 소동파의 적벽부가 7월달 달밤에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7월의 노래(七月章)'라고 함.
42) 세세히 : 매우 자세히.
43) 수란(愁亂) : 시름이 많아서 정신이 어지럽다.
44) 창해(滄海) : 넓은 바다.
45) 우공산천(禹貢山川) : 우공은 서경(書經)의 편명(篇名)으로 우임금이 10여년 간 산천을 측량하고 강을 다스려 공을 세웠다 하여 생긴 말로, 후일 아름다운 산과 강이라는 뜻으로 쓰임.
46) 창망(滄茫) : 넓고 멀어서 아득함.
47) 동기동반(同氣同伴) : 친형제와 친구.
48) 오매불망(寤寐不忘) : 자나 깨나 잊지 못함.
49) 동유(同遊) : 같이 놀던 친구.
50) 귀녕(歸寧) : 근친(覲親)과 같은 말로 시집간 딸이 친정에 가서 부모를 봄.
51) 용지연(龍池硯) : 용을 새긴 벼루.
52) 백로지(白露紙) : 갱지(更紙)를 속되게 부르는 말.
53) 일필휘지(一筆揮之) : 글씨를 단숨에 죽 내리 씀.
54) 가족종숙(家族從叔) : 5촌 이내의 가족관계.
55) 야린 : 의지나 감정 등이 모질지 못하고 무른.
56) 악수상봉(握手相逢) : 손잡고 만남.

본자료는 행정안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